



CONTENTS 1

시작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소한 능력

장인 발굴 프로젝트 과정

사소한 연구소 소개

우리가 방문한 장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사소한 능력”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날마다 비슷한 일을 하며 살고 있다. 각자에게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반복 속에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저마다의 경험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서로 알리고 함께 나누자는 생각에서 장인 발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장인’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대개 장인이라고 하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기능적인 장인보다는 생활 속 경험과 지혜로 자신만의 소소한 재능을 익힌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사소한 장인을 찾는다는 콘셉트로 ‘사소한 연구소’를 만들었다. 이어 장인들을 모집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선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인의 기준을 정했다. 시간이었다. 1만 시간의 법칙.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콤 글래드웰은 말했다. 1만 시간이란 하루 3시간씩 거의 10년 가까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자신의 힘과 끈기를 쏟으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거창한 것 같지만 한 마디로,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숨쉬기라도 있다. (결국 우리는 숨쉬기의 장인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모집에 들어갔다. 포스터를 만들어 지역 곳곳에 붙이고 신청을 받았다. 애완동물을 키운 사람, 정원을 가꾼 사람, 화투를 친 사람, 음식 만들기를 즐긴 사람. 오래도록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 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괜찮았다. 우리의 사소한 장인들이 프로젝트에 신청하기 시작했다.

인터뷰를 여러 번에 걸쳐 진행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 되었다. 사소한 장인들의 능력은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신청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과 놀아주기’ 능력으로 신청했던 김가화 장인은 독립적인 삶을 사는 어머니자 문화 프로그램 활용의 달인이었다. ‘취미 사진으로 돈 벌기’ 능력으로 신청한 오권열 장인은 사진 공모전과 기상 예측의 달인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기청년문화창작소’가 있는 수원 서둔동 지역 장인들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여러 모양의 재미난 시계를 걸어 놓고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해 온 50년 경력의 이발소 사장님. 한 평 남짓한 가게에서 40년 넘게 정성껏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는 할아버지. 솜이불에 대해 멋진 강의를 들려준 솜틀집 사장님 부부. 열심히 살아온 지역 장인들의 세월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받쳐주는 생생한 힘이였다.

장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배움을 얻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 멈추지 않고 줄곧 노력하며 실현해온 생활 장인들의 삶. 우리의 시선은 깊어졌고 넓어졌다.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 자신 속을,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다. 평소 생각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던 것들에 관심이 생겨나고 있었다.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장인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우리가 느꼈던 시선의 확장을 경험하길 바란다.

- 사소한 연구소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우리반엔 능력자 a.k.a 덕후가 있다.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구김있는 옷을 입는 적이 없다 (feat.다리미)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사랑꾼이다. ☞☜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수집광이다.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나만의 주도(酒道)가 있다.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10년동안 혼자 밥을 먹었다 π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10년동안 기른 애완동물이 있다.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10년동안 한국에 살았다 / I've lived in Korea for 10 years / 我在韓國生 活了10年 / मैं 10 वर्ष को लागा कोरिया मा सुने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집에 갑작스런 손님이 와도 부끄럽지 않다. (얕팜얕팜)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10년동안 가꾼 정원이 있다.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나는 화투로 돈을 잃은 적이 없다.	장인발굴 프로젝트 장인모집포스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소한 능력자를 찾습니다. 자신만의 남다른 재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분, 살아가면서 터득한 생활 노하우, 지식, 비결들을 나누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안에 담긴 능력들을 사소한 연구소에서 발굴해 드립니다! 지원방법 장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glasskang@gcfc.or.kr) 접수 기간 2016년 9월 20일(화) 오후 12시까지 - 신청한 후에는 변경 없이 드립니다. 혜택 1. 각자의 능력을 활용한 강사활동 기회 2. 장인 인증서 제권 3. 자신의 능력과 이야기가 담긴 책 발간!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무료 정장 및 브로치와 커피를 드립니다. 주최 장기문화재단 후원 장기문화재단 후원 장기문화재단 후원 장기문화재단 후원 장기문화재단 후원 장기문화재단 후원

장인 발굴 프로젝트 과정

2016년	8월 2일	첫 콘셉트 회의를 열다
	8월 3일	'사소한 연구소'로 이름을 정하다
	8월 24일	하석호 군이 새로운 멤버로 참가하다
	8월 25일	'사소한 장인' 모집 포스터를 만들다
	8월 26일	창작소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다
	8월 30일	벌터 마을을 돌며 포스터를 붙이고 주민들과 만나다
	8월 31일	비가 내려 애써 붙인 포스터들이 떨어지다
	9월 2일	밤새 몰아친 강풍에 남은 포스터마저도 떨어지다
	9월 5일	서둔동 지역을 돌며 포스터를 붙이고 주민들과 만나다 서둔동장님 및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다
	9월 6일	서둔동 주민 센터에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다
	9월 29일	바느질 분야의 전소라 장인, 육아 분야의 김가화 장인과 만나다
	10월 6일	국선도를 하는 강수혁 장인과 만나다
	10월 14일	글쓰기에 뛰어난 김나영 장인과 만나다
	10월 18일	패션 모티베이터 이현주 장인과 만나다
	10월 27일	사진 공모전에 일가견 있는 오권열 장인과 만나다
	10월 28일	서둔동 지역 장인들을 방문하다
	11월 3일	서둔동 오래된 곳을 찾아가다
	11월 14일	날씨 읽기의 달인, 오권열 장인을 다시 방문하다
	11월 15일	보헤미안 맘, 김가화 장인을 다시 방문하다
	11월 17일	리폼의 달인, 이현주 장인을 다시 방문하다
	11월 24일	숨쉬기의 달인, 강수혁 장인을 다시 방문하다

사소한 연구소 소개



연구원1 강우진

역사와 지역 이야기에 관심 많은 청년. 지역 이야기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 밖으로 다니는 걸 좋아해 서둔동 돌아다니기 담당을 맡았다.



연구원2 오린지

필름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 독립출판에 매력을 느껴 사만킬로미터 출판사를 운영 중이다. 사진촬영과 책 만들기를 담당하였다.



연구원3 이연우

비주얼아티스트를 꿈꾸는 열정 가득한 청년. 사진을 전공 했으며 사만킬로미터 출판사 멤버다. 사진촬영, 인터뷰, 책 만들기를 담당하였다.



연구원4 하석호

말장난을 좋아하며 수다를 즐기는 청년.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현재 꿈은 화성(mars)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 것이다. 본인이 선한 인상의 소유자라 착각해서 주로 대면 인터뷰를 맡았다.

우리가 방문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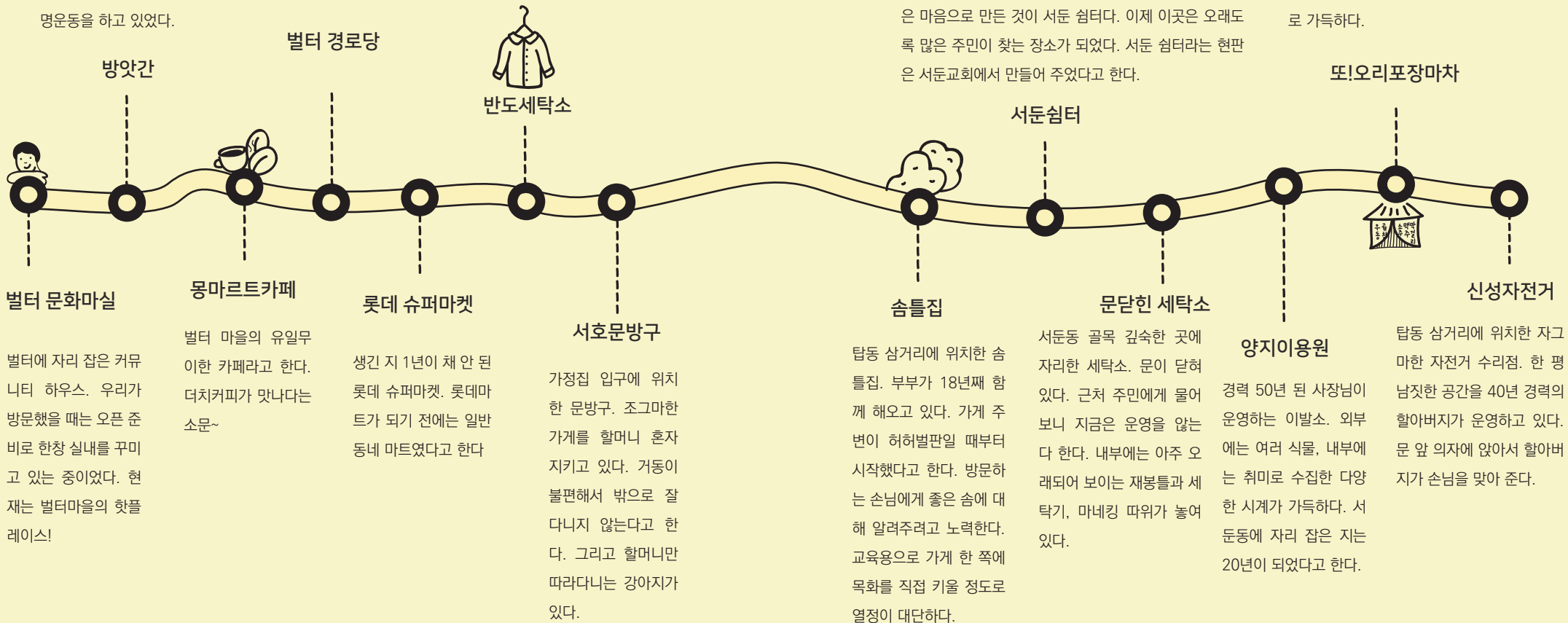
기간은 잘 모르지만 운영한지 10년은 넘었다고 한다. 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위해 소신껏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 사장님.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식목일 이전에 관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층으로 지은 현대적 외관의 별터 경로당. 일층은 할머니 방, 이층은 할아버지 방으로 구분되어 있다. 경로당 앞에는 넓은 정자가 두 채 있어서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다

부부가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

쉽터라는 이름이지만 공공기관에서 만든 곳은 아니다. 집 주인 할머니가 자기집 앞마당을 고쳐 만든 공간이다. 쉽터를 만든 지는 15년. 할머니는 예전에 서둔교회에서 13년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계속 하기는 무리였다. 봉사를 멈추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만든 것이 서둔 쉽터다. 이제 이곳은 오래도록 많은 주인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서둔 쉽터라는 현판은 서둔교회에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다섯 골목이 모이는 동의부민약국 옆에는 다소 허름해 보이는 분식집이 있다. 또! 오리 포장마차. 상호만 들으면 어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아니다. 이곳의 단골손님은 동네 청소년들이다. 오후 4시 50분이 되면 아이들이 몰려온다고 10여 년 동안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알려준다. 학생들이 손님인 만큼 가격은 저렴하다. 실내는 아이들이 쓴 다양한 메모들로 가득하다.



별터

서둔동, 탐동

장인 인터뷰

<국선도> 강수혁

<글쓰기> 김나영

<패션모티베이터> 이현주

<육아> 김가화

<바느질> 전소라

<사진> 오권열

<장인 인터뷰>에는 장인발굴프로젝트에 지원하신 분들 중 선정된 6분과의

대화가 담겨있다. 사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안에 녹아있는 유용한 노하우들을 엿볼 수 있다.

장인인터뷰 1 강수혁



국선도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국선도> 강수혁 장인

국선도를 시작한 계기

연구원(이하 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강수혁 장인(이하 강) 대우그룹에 20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임을 했어요. 그 후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 부동산도 운영해보았죠. 최근에는 렌즈회사 공장 총 책임으로 있다가 지금은 마케팅회사에서 수출 쪽을 맡고 있어요.

연 국선도는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강 대우그룹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인도 지사에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인도는 요가가 유명하잖아요, 그 곳에 있으면서 요가를 2년 정도 배웠어요. 그 후 IMF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동안 배운 요가를 계속하고 싶어서 수련할 곳을 찾다가 우리나라 전통 수련법인 국선도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2000년도니까 16년 정도 한 거죠.

연 (놀라며)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회사에 길게 근무한 것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을까요? 보통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강 그렇기도 하구요, 예전부터 동양사상이나 동양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노자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연 처음 국선도를 배운 곳은 어디였나요?

강 이전엔 수원에 국선도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도장이 개장을 했어요. 제 종교는 불교인데 계룡산 아는 절의 주지스님이 국선도를 추천하셨거든요. 아쉬워하던 차에 도장이 생겨서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가서 수련했어요.

연 다행이네요! 국선도를 시작하고 나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화가 있을까요?

강 일화는 따로 없는데, 국선도를 배우면 기혈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수련 중에 방귀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경험은 좀 있어요.

연 (웃음) 음악을 필히 틀어놔야겠네요.

국선도란?

연 그 전엔 요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가와 국선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강 가장 큰 차이는 호흡이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인도는 사계절이 덥기 때문에 호흡법이 다르거든요. 인도는 더우니까 요가에선 내뿜는 호흡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 음/양, 좌/우 같은 균형이 생기지요. 국선도는 거기에 맞는 호흡법을 해요. 또, 육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마음 단련하는 것,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 등등 지덕체를 두루 합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연 국선도는 한국 고유의 것인가요?

강 국선도는 단군시대부터 존재했어요. 예전 TV 드라마 중에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걸 보면 연개소문이 국선도를 수행하는 도인으로 나오거든요. 연개소문이 들어 있는 건물에 악당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연개소문은 멀쩡히 살아서 걸어 나와요.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해요. 일반인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선도를 60년대 이후 청산선사라는 분이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접하는 장르라 사람들은 ‘이게 뭐냐’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그 분이 불속에서 걷는 모습이나, 물속에서 15분 이상 있는 모습 같은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호흡법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연 그럼 청산성사는 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강 국선도의 선도라고 볼 수 있겠죠. 보급을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서 후에 여러 분파가 나뉘어서 단전호흡이란 말도 생기고, 단학선원이라는 분야도 생긴 거죠.

연 아, 단전호흡은 많이 들어봤어요. 국선도의 분파였군요. 국선도를 하면서 건강이 달라진 부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 국선도는 우리 몸이 병들고 피곤해지는 원인인 순환을 바로 잡아줘요. 기혈순환이 잘 되면 병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병을 얻은 다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병이 오기 전에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하는 거죠. 국선도 수련할 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처음 20분 동안은 기혈순환유통법이라고 해서 온몸의 기혈을 풀어줘요. 그 후 40분 동안은 단전호흡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운동으로 마무리를 해요. 총 한 시간 이십 분 코스가 보통이고 상황에 따라 삼십 분에서 한 시간으로 단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기혈순환유통법만 해



도 온 몸의 기혈이 잘 풀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또, 단전호흡과 명상호흡을 하는 것이 면역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아주대학교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옛날엔 육군사관학교처럼 훈련이 필요한 기관에서도 많이 응용했어요.

연 그럼 선생님도 병에 잘 안 걸리세요?

강 네. 그런 편이죠. 보통 이 운동 하시는 분들은 감기에 걸리는 일도 드물고 다른 병치레도 별로 없어요. 술을 마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5시경에 수련을 하고 있어요.

연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고 하신다구요~?(놀람)

강 그럼요. 인도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요가 수련이 새벽에 동 트기 전에 시작해서 동이 틀 무렵 끝나거든요. 국선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련 할 때 선생님이 가이드 주시는 것을 녹음해 났다가, 핸드폰에 넣어 놓고 어디서든 할 수 있게 가지고 다녀요.

연 그래서 그런지 혈색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이나 우울증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명상이 머리와 마음을 맑게 해준다고 하던데요.

강 그럼요. 막 섞여서 잘 보이지 않는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어느새 불순물들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명상을 하고 나면 어지러운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요.

함께하는 국선도

연 국선도 자격증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을 가르쳐보기도 하셨나요?

강 지금 제가 수원사에서 할아버지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는데, 시작하기 30분 전에 단원들 수련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노인이나 노숙자 분들 교육을 해왔어요.

연 그렇다면 동작을 따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할 때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강 물론 사람에 따라 힘든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동작은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괜

찮아요. 억지로 하는 것 보다는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순환에 도움이 되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동작을 취하기 힘든 부분에 정신을 집중해주면 어느 순간엔 할 수 있게 되요.

연 국선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세요?

강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뭐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국선도를 하면서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죽는 순간까지도 편안한 것. 그것이 제일 바라는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연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내 옆 자리를 지켜주신 아내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날마다 수련을 하는 남편을 보시면서 든 생각이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수혁 장인 아내 저희는 부부싸움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베개를 던진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남편이 베개를 딱 받더니 “감사합니다.”이라고 자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싸움을 걸어도 소용없어요. 박수도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남편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제가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질 않으니 싸움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신경질이 나서 집에 들어와도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 저를 가라앉혀주는 말을 해줘요. 어떻게 저런 성격이 되었는지 부럽더라고요. 아이들이 싸울 때도 저는 막 말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이들이니 싸울 수도 있다는 식이에요. 제 생각엔 남편이 수련을 해서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 같아요. 남편이 제게 해준 말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 수준으로 아이들을 보지 말래요. 아이들을 볼 땐 아이들 수준에 맞게 봐야 한다고요. 아이가 중학생이면 중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래요. 내가 중학생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많이 배웠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국선도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기가 흠어지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있어야지 집중이 되고 신이나요. 우리가 걸을 때도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것을 느끼면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아래로 짝 내려오거든요. 땅에 감사한 마음을 보내야 땅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내 몸으로 전해오는 거고. 숨 쉬는 것도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데 수련을 통해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을 알면 감사해해요.

연 국선도가 좋은 운동인건 알고 있었지만 두루두루 좋다는 것을 이번에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면에서 작게 일어나는 감정도 글로 쓰다보면
엄청 커지거든요.

<글쓰기> 김나영 장인

글을 쓰게 된 계기

연구원(이하 연) 장인발굴프로젝트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어요?

김나영 장인(이하 김) 서둔동 카페 몽마르트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보았어요. 제 전공을 다시 살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된 거예요. 또 청소년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다시 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 준비를 하는 중이거든요.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과 접하면서 제 생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았어요.

연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있나요?

김 병원마케팅회사에서 영상제작을 하고 있어요.

연 글을 쓴다고 하셨는데 문예창작을 전공하신건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김 네 맞아요. 글을 쓴 지는 6년 정도 되었어요.

연 글쓰기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세요?

김 일본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한 적이 있어요.

연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까닭이 있을까요?

김 어릴 때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론 더 심해졌고요. 그런 억압된

마음을 글로 표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서는 방송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더욱 글 쓰는 것에 재미를 느껴 대학에서도 전공을 했죠. 돈을 벌어야 해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틈틈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 그렇군요. 어떤 장르의 글을 쓰나요?

김 주로 일기 형식의 수필이요. 소설도 쓰고 있고요.

연 맨 처음 완성했던 글, 혹시 기억나세요?

김 네. 공포영화 시나리오였어요. 학원물이었는데,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거였어요. 방송부 일로 썼죠. ‘그 소문 들어본 적 있니? …예전에 누가 자살을 했대. 그 애가 정말 집착이 심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자 애들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죠. ‘근데 있잖아… 그게 나야.’ 이런 거요.(웃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죠.

연 가장 최근에 쓰신 작품은요?

김 요즘에는 그냥 일정한 형식 없이 쓰고 있어요.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적고 있죠.

연 글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김 저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다

루고 싶어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같은 것에 관한 시나리오를 많이 썼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요.

연 글을 쓰면 어디에 올리거나 공개하시나요?

김 아니요. 나중에 개인소장용 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있어요.

연 등단을 할 생각은요?

김 딱히 없어요. 글을 쓰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글을 쓰면 좋은 점

연 글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 정리하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아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면에서 작게 일어나는 감정도 글로 쓰다보면 엄청 커지거든요. 스스로의 생각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고민 같은 것도 많이 정리되고. 나중에 읽어 보면 아이디어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글을 쓰는 사람은 전등이나 길바닥의 쓰레기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연 누군가에게 글 쓰는 매력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 그래도 아직 20대 초반이니, 앞으로 글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글쓰기 위주의 목표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가고 싶은 방향을 바라볼 때 글쓰기는 크게 도움이 되요. 제가 아는 대안학교 중에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시나리오와 영화 제작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꿈을 이루려고 청소년복지학과에 들어가서 다시 공부도 하고 있고요.

김 어렵네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얘기해도 와 닿는 건 개개인마다 다를 테니까.

연 글 쓰는 재능으로 다른 분들을 가르쳐 본 경험은 있으세요?

김 네.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보육원에서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글 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이나 책으로 제작하기도 했어요. 보람이 컸어요.

연 보육원 일은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김 어머니가 보육교사여서 저도 일을 도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쓰기와 시나리오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보게 했어요. 하늘은 무슨 색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어땠고 등등.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해보면 정말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별한 얘기 같지 않지만 글이 많이 늘죠.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에 대해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청 철학적인 것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게 되고,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설을 모아서 책도 만들었어요. 총 3개월 동안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연 청소년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 제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소위 말해서 일진이었죠. 그런 아이들이 자꾸만 삐뚤어지는 건 마음 열 곳이 없고 힘든 것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어떤 일인지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언니는 글을 쓰니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요. 그 뒤로 이런저런 힘든 얘기며 고민도 털어놓고 했어요. 언니가 날 좀 이끌어줬음 좋겠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때 제가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졸업 후의 취업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을 때였죠. 그런데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 앞길에 대한 생각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아, 내가 청소년 복지 쪽에서 일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하고요. 청소년 상

담을 하거나 지도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연 혹시 동생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본 적은 있으세요?(웃음)

김 아니요. 권해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별 관심 없더라고요.

연 가족들은 본인의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부모님은 두 분 다 반대하세요.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그 일이 힘들다는 걸 잘 아시거든요.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나. 회사나 열심히 다녀라.” 라고 하시죠.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글쓰기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학교에 들어가 청소년 복지도 공부하고 있으니, 사실 전 꿈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하하.



동기부여자. 딱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패션 모티베이터> 이현주 장인

옷을 만들기 시작한 까닭

연구원(이하 연) 이현주 장인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현주 장인(이하 이) 예전엔 회사에서 의상디자이너랑 패턴사 일을 했어요. 4~5년 정도. 그러다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만 두었어요. 그 뒤 사람들과 소통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가르쳤지요. 그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대학 강사를 했어요. 지금은 패션과 패션창업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의상제작, 마케팅, 디자인 분야를 가르치죠.

연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예전엔 디자이너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옷 만드는 건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이 저는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패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인형 옷 만들고 다른 거 이것저것 만드는 것부터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옷 공장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연 옷을 만든다는 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만드는 기쁨이죠. 옷도 옷이지만 만드는 거 자체에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창작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요. 제 학생들도 아주머니든 어린 학생들이든 자신이 만든 걸 수도 없이 꺼내 봐요. 너무 좋으니까.

패션 모티베이터가 된 계기

연 같은 분야라 해도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것과 남을 가르치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처음 강사 일을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 네. 크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좋거든요. 모티베이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기부여자. 딱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창출해야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게 좋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연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시나요?

이 처음에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은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해서 팔고 싶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예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 서너 명이 모여서 패션 창업을 하겠다고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 중구난방식의 디자인을 해요. 스트리트 패션 쇼핑몰을 한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메인에는 댄디한 스타일의 깔끔한 남자가 서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쇼핑몰은 안 들어가겠죠? 전 거기서부터 만져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팔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제일 먼저 콘셉트를 잡는 것부터. 그리고 전문용어들이 거의 다 변형된 일본어라 뜻을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기초지식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와 같은 실무적인 걸 알려줘요.

연 패션 창업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모티베이터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고자 하시나요?

이 사실 창업하려는 분들이 의욕만 앞선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전략사업 창업 클래스들은 여러 분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해서 너무 광범위해요. 패션창업에만 집중되어 있진 않죠. 저는 창업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러면 좀 더 창업성공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셉트부터 시작해 어떤 분야에 연령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같은 것을 알려주죠. 또, 공장에 어떻게 맡기고 작업지시서를 어떻게 꾸미고 하는지에 대해서도요.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죠. 그러다보니 전문학교의 커리큘럼에만 얽매이지 말고, 개인적으로 강의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학교 이외에도 개인공방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줘요.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모티베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작은 꿈들을 현실로 실현시키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연 혹 기억에 남는 제자분이 있으세요?

이 네. 한 남학생이 기억에 남아요. 외아들인데 중국으로 초등학교 때 조기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한의학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이 원해서 한 거였어요. 본인은 패션이 너무 하고 싶어서 자살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대요. 결국 한국으로 도망쳐 와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옷을 만들더라고요. 9개월 동안요. 그 친구가 클럽을 굉장히 좋아해 희한한 옷을 만들어서 클럽에 입고가곤 했어요. 그 학생은 비전공자지만 결국 디자인이 너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

연 패션이 아닌, 새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요?

이 저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의 창의성예요. 아직 상상의 문이 닫히지 않은 시기의 아이들이 펼치는 그림을 보는 게 즐거워요. 제가 어릴 때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공부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드니까요. 근데 제가 의상 쪽 일을 하게 되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모님이 밀어주셨으면 좀 더 빨리 이 길에 들어섰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직 저 혼자 느끼고, 경험하고 하면서 힘들게 지나온 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림 그리거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특히 가난해서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또, 지금까지 이십 대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나이여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건 슬프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더 잘 이끌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죠.

연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제가 앞서 말한 전문학교는 국가(고용노동부)에서 개인에게 100~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돈으로 운영을 해요. 큰돈이 드는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평소 패션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도 신청할 때가 있어요. 다행히 그 중 몇 명은 하다 보니 재미를 느껴 이쪽 길로 가겠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때 기분이 좋아요. 조금만 더 치해주면 그 친구들의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강사를 하는 묘미예요.

연 모티베이터의 역할 이외에도 본인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개인 작업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좀 더 고차원적인 옷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기성복들을 주로 만들었거든요. 요즘엔 아트웨어에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인 작업으로 IT 기술과 융합하는 작업을 굉장히 해보고 싶어요. 웨어러블이나, LED를 사용하는 작업들이요. 그리고 창업도 생각중이고요.

연 말씀 들어보니 대단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자신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애쓰시잖아요. 선생님의 좋은 에너지 앞으로도 많이 퍼뜨려주세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장인인터뷰 4 김가화



실컷 논 아이가 나중에 커서 좋은 어른이 된다.

<육아> 김가화 장인

장인의 육아철학

연구원(이하 연)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김가화 장인(이하 김) 이 프로그램 취지를 듣고 저도 육아에 관해선 나름 소소한 장인이 아닐까 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특히 건강한 먹을거리나, 엽매이지 않은 교육방식, 품앗이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에 대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고 조금씩 실천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 자유로운 육아하면 좀 광범위한 느낌이라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어떤 육아철학이나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 철학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읽은 책에서 인용하는 걸로 제 나름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저에게 심리학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책에서 나온 구절이 있는데 그 말대로 실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컷 논 아이가 나중에 커서 좋은 어른이 된다.' 라는 문장이예요.

연 아, 자유롭게 커야한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럼 자녀분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요즘 아이들과는 좀 다르겠네요?

김 네. 학원을 무조건 보내진 않아요. 스스로 원할 경우 악기나 말 타기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하는 정도죠. 딸은 친구를 따라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어 하기에 보내줬어요. 아들은 지금 다니는 학원이 없고요.

연 두 자녀를 두셨나 봐요. 몇 살이나 되었나요?

김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연 아, 터울이 좀 있네요. 중 2학년이면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시겠어요. 대개 일찌감치 방향을 정하던데요.

김 그렇긴 하지만 첫째는 고등학교를 안 보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마음이 그쪽으로 더 기울었는데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도 있고요.

연 대부분 주변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으레 밟잖아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걱정되진 않으세요?

김 네. 그렇진 않아요. ‘고등학교를 안 가는 게 뭐 어때서?’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학력의 높고 낮음이 아이의 앞길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아이가 어릴수록 ‘조기교육을 시키고 싶다.’ ‘우리 아이는 꼭 민속사관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 엄마들이 아주 의욕적이지요. 그러다 아이가 다섯 살 정도만 되어도 꿈에서 깨기 시작해요.(웃음) 저도 키우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결국 아이 인생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지’ 라고요. 엄마가 순간마다 아이의 관심과 재능을 보고 미래를 열심히 계획해 두어도 소용없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꿈도 계속 바뀌거든요. 둘째를 가질 때쯤 첫째가 특공무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꿈이 경찰이었다가, 3학년이 되어 첼로를 배우면서는 지휘자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니 또 꿈이 달라졌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연 그래도 아이들을 부모로써 이끌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김 음,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제 아들은 보드게임을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게임도구를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가지고 본인만의 게임기를 만들며 놀기를 즐기죠. 박스를 여러 개 붙이고 구멍을 뚫은 후 카드를 넣어서 자동카드선택기를 만든다거나 하면서요. 덕분에 집이 얼마나 난장판인지.(웃음) 그럴 때 아이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게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죠.

연 자녀분들이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김 맞아요. 앞서 말했지만 저희 아들 꿈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지금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제작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벌어요. 그리고 요즘엔 혼자 게임을 하나 개발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들고 있는 건 테트리스인데 아직은 테스트중이긴 하지만 구글에 제 돈 25달러를 긁고 사업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정식등록을 하려고요.

연 굉장히 놀라운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 안하고 뭘했나 싶고요(웃음). 그럼 아드님은 게임제작자가 꿈인가요?



김 네. 그런 것 같아요.

연 아이들이 굉장히 자발적이네요. 아이들 성향이 부모님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조금은 그럴겠죠? (웃음) 제가 독립적인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 엄마로만 만족하지는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예요. 큰 아이를 키울 땐 한 곳에 정착한 시기도 아니었고, 아이랑 함께 노는 게 좋아서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원에 이사 온 뒤로는 좀 외로워졌어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둘째가 두 돌이 지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제가 그 시기에 우울해했더니 우리 엄마가 아이들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관심사를 찾아보라고 조언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바깥생활이 시작되었죠. (웃음).

연 바깥생활이라면 어떤 활동을 말씀하시는지요?

김 2011년부터 이것저것 배우러 다녔어요. 처음엔 손으로 만드는 것이나 아이들을 위한 천연용품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러다 2012년부터는 제 자신을 위한 강연이나 워크숍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한 마을공모사업, 딱복에서 하는 마을강사 육성사업 같은 마을과 공간에 관련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죠. 그래서 현재는 다른 마을에도 찾아가 마을 강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경기문화재단의 다사리학교에 참여한 것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서핑 하던 중에 알게 되어 신청했어요. 장인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품앗이 육아, 육아방식의 변화

김 전 품앗이육아도 실천하고 있어요. 올 여름부터 시작했어요. 아는 목장에서 체험 강사를 찾고 있기에 동네엄마들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았죠. 엄마들이 요일별로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품앗이 육아는 엄마나 아이 모두에게 아주 도움이 되요. 아이들은 또래끼리 모이니 같이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신나하죠. 엄마들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어 쉬는 시간이 생겼고요.

연 정말 일석이조네요. 하지만 여러 아이들을 한꺼번에 돌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세 명 이상의 아이들을 보살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김 바깥 활동을 많이 해요. 차 뒷좌석에 아이들을 조르르 태워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죠. 공원에 가게 되면 거의 두 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놀아요. 지치죠. 눈에 보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 하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불끈 힘을 내죠. 마이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아니야, 일루와~” 라고 목청껏 외쳐야 할 때가 많거든요 (웃음).

연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 학습스트레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교육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반갑네요.

김 맞아요. 어떤 엄마도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들부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자라면서 자신의 앞길을 열어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요즘 제가 사는 화성시에 제안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화성에는 아직 수원만큼 아이와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거든요.

연 아,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바느질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바느질> 전소라 장인

연구원(이하 연)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와 함께 프로그램에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전소라 장인(이하 전) 저는 전소라라고 해요. 바느질로 장인발굴프로젝트에 지원했어요. 제가 삼일 전에 브라질에서 귀국했거든요. 이 프로젝트 전단지는 브라질에서 우연히 인터넷으로 봤어요. 평소 바느질이 취미였는데 보니까 소소한 장인들을 찾는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즐겨하던 거라 지원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에요. 여행 중에 한국가면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장인발굴 포스터를 보게 된 거였어요.

연 아, 그렇군요. 여행을 하면서 바느질을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든 건 특별히 무슨 까닭이 있을까요?

전 전에 아프리카에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 곳은 큰 천을 많이 팔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깨에 둘러서 옷처럼 입고 다니는 천이에요. 저도 입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천은 싸지만 옷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상품화가 되어서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을 떠 만들어 보았어요. 생각보다 입을 만한 옷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청바지 잘라서 가방 만들고, 천으로 필통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바느질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연 아프리카에서 봉사라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그곳은 화려한 천을 많이 사용하던데 정말 그렇던가요?

전 네. 천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닌데 패턴이 화려해요. 알록달록 하죠. 그런 점에 매력을 느껴서 옷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연 지금도 그 옷을 가지고 계세요?

전 네. 가져와서 한국에서도 한두 번 입었는데 입고 밖에 돌아다니진 못하겠더라고요. (웃음) 너무 튀어서요.

연 바느질 말고 원래 하시던 다른 일이 있나요?

전 저는 스페인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컨설팅회사에서 통번역 일을 했어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 둔 상태라 5개월 정도 브라질에 다녀올 수 있었죠.

연 봉사활동을 간 아프리카에는 어느 정도 계셨던 건가요?

전 6개월 있었어요.

연 거기선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전 청소년들이 있는 아프리카 직업학교에

서 봉사를 했어요. 사소한 스킬들을 알려주는 일을 했죠. 천 잘라서 주머니 만들기 같은 거요.

연 아, 그럼 바느질로 수업도 해보신거네요?

바느질의 매력

연 재봉틀을 쓰지 않고 손바느질을 하시는 거잖아요? 손바느질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전 우선, 바느질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집에 와 바느질을 하면 쉬는 느낌이 들어요. 회사 그 만두고 바느질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연 바느질로 힐링을 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재봉틀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손바느질의 그런 점이 힘들던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전 전 완성하는 것 보다는 그 과정이 더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힐링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걸려서 완성을 하면 성취감이 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보람을 느끼죠.

연 주로 만드시는 게 뭐예요?

전 주머니요. 화장품 넣는 파우치 같은.

전 그런 셈이에요. (웃음) 그런데 굉장히 기본적인 거였어요. 우리나라 학교 가정시간에 배우는 바느질 정도요. 하지만 같이 갔던 브라질 봉사자가 제가 그런 걸 할 줄 안다니까 신기해했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 친구는 신기하게 봐주더라고요.

연 혹시 판매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아니요. 취미로 하는 거고 손으로 일일이 만드는 것이라 많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 언젠가 한 번 친구가 마음에 드는지 사고 싶어 해서 파우치 두 개를 판 적이 있어요. 만원에 팔았죠.

연 (놀람) 너무 싸게 파신 거 아니에요?

전 (웃음) 사실 제가 너무 공을 들여 만든 것들이라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아까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물처럼 주자 싶어서 싸게 줬어요. 그냥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연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사이즈가 큰 작품은 어떤 거예요?

전 웃이요. 바지와 윗옷, 원피스 같은 것. 만든 것들이 많진 않아요. 주로 만드는 건 주머니, 노트북파우치 그런 종류지요.

앞으로 꿈꾸는 미래

연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볼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공방 같은 것을 열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브라질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어요. 대학 의류학과에 진학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보구요. 그런데 패션디자인과를 떠올리면 제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 망설이게 돼요. 저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요. 침선이란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바느질이에요. 장인 분들도 계시구요. 그분들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알아보는 중이에요.

연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소박한 작업만 해 오셨는데, 전통 바느질을 배운 후에는 작품 활동을 해보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전 기회가 되면 그러고 싶어요. 언젠가 한 벽이 다 천으로 덮인 패치폴라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뒤로 늘 그런 큰 작업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남아 있어요.

연 나중에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선생님의 좋은 작품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게 대화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내 얘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진> 오권열 장인

사진의 시작

연구원(이하 연) 본인 소개와 함께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권열 장인(이하 오) 저는 오권열이라고 하고요. 홈페이지를 보다가 장인발굴프로젝트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께 사진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 전시를 하실 정도면 사진을 하신지 꽤 되셨나 봐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 2010년도요.

연 아, 생각보다 오래 하신 건 아니네요?

오 네.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 중엔 저보다 오래 사진을 해온 분들도 계세요.

연 놀랍네요. 신청서에 적어주신 바로는 아주 많은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셔서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 오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오 저는 사진을 시작하기 전에 웹디자인을 조금 했어요. 사진 가공하는 법을 먼저 배운 거죠. 그래서 사진이 굉장히 쉬웠어요. 만질 줄 아니까요. 2010년 초 부터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2010년 말에 기상사진공모전에서 상을 덜컥 타버렸어요. 그때 ‘아 내가 사진을 곧잘 찍는가보구나’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찾아보고 습득하고 공부했어요. 2011년도에는 너무 상을 많이 타서 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웃음) 그땐 40개의 공모전에 내면 30개는 탔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사진이란 게 역시 쉬운 게 아니라고 느꼈죠.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아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취미거든요. 외국 저널을 많이 봐요.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전을 빨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내 사진은 잘 안되나요?’ 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피아노 배우시는 분들은 바이엘, 체르니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지 않느냐. 사진도 마찬가지다. 인문학적 소양도 있어야하고, 단순히 카메라를 다룬다고 해서 사진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저도 사진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연 공부가 취미시라니! 제겐 놀랍네요.(웃음) 공모전에 아주 많이 당선되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았던 적은 언제인가요?

오 작년에도. 그때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상을 많이 탄 해지요. 대상 네 번에 입상은 마흔 네 번 탔으니까. 올해는 대상 두 번에 입상은 스무 번 좀 넘어요.

사진으로 돈 벌기, 공모전 합격 비법

연 저희에겐 공모전의 달인처럼 느껴지는데 공모전에 합격하는 비결이 있나요?

오 공모전은 생각보다 쉬워요. 공모전에서 잘되는 것은 사실 사진의 질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되요.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람이 무슨 사진을 원할 것인지. 거기에 맞는 사진을 제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 중 골라서 내면 되는 거예요. 주제에 대한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독특해야 해요. 일반 공모전들은 4000:1 혹은 20000:1 이런 경쟁률이거든요. 그 안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사진이 튀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름공모전이면 겨울사진 내고 겨울공모전이면 여름사진 내는 식이에요. 계절을 바꿔서 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흔히들 공모전을 하면은 주제를 보고 그때 바로 찍어서 내거든요. 그럼 같은 시기에 찍은 것이다 보니 비슷비슷한 사진들 밖에 없어요. 근데 미리 본인 사진들이 준비되어있으면 거기서 선택해서 내는 거예요.

연 저는 공모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얻으세요?

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구글링해서 엑셀에 정리해놓고 있다가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 포함된 주제면 골라서 출품해요. 사진은 1년에 1TB 정도 찍기 때문에 정리를 늘 해놔요.

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상금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오 다 모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요. 그렇게 많은 편 아니에요.

연 그 돈은 어디다가 쓰시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오 장비 사죠. 저는 제 돈으로 장비 사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공모전에서 상금도 주지만 카메라 주는 데도 있고, 삼각대 주는 데도 있고, 가방 을 주기도 해서 그런 거 받아서 썼어요.

연 사진 찍으러 가실 때 사진기는 몇 대 정도 가지고 가세요?

오 한 두세 대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연 이유가 있을까요?

오 화각에 따라 달라서요. 또, 제가 주로 장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카메라를 장시간을 돌려야 해서 고정을 해두고 나머지 두 대로 스틸 사진(정지된 사진)을 찍죠.

사진의 색

연 주로 장노출을 하는 것이 본인의 색깔인가요?

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흐름이 나타나고, 입체감이 생겨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체감이거든요. 2D지만 3D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속도감과 빛, 구도에 저의 표현법이 어우러져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노출을 즐겨 찍어요.

연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 사진을 보면 대체적으로 화려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찍는 것보다 가공하는 법을 먼저 배우셨다고 하는데 포토샵도 많이 사용하시나요?

오 네. 후가공도 많이 해요. 물론 안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카메라와 우리 눈은 많이 달라서 눈으로 보는 것과 실체는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후가공을 통해 제가 보았던 색감, 느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연 그렇다면 한 공간에서 촬영을 하시기 전에도 어떤 식의 사진을 뽑아내야겠다는 그림을 머릿속에 미리 그리시나요?

오 네. 미리 구상을 하는 편이에요.

연 촬영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오 자주 나가지는 못해요. 날이 좋아야 하니까요. 나가는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헛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풍경을 찍는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볼 줄 알아야 해요. 풍속이나 온도차도 봐야 하고 구름 돌아가는 모습도 봐야 해요. 그래야 가서 헛고생을 안 해요. 그런 걸 체크해서 가면 원하는 사진을 건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나가는 횟수는 일정하지 않지요. 여름에는 날마다 찍을 때도 있어요. 날씨만 좋으면 퇴근하고 나가죠. 그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주중엔 힘들고 거의 주말에 나가는 편이에요.



연 촬영을 가셨다가 허탕 친 적도 있나요?

오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땐 플랜 B를 가동해요. 혼자 가면 그냥 올 때도 있지만 보통 제가 가르치는 분들과 같이 가거든요. 그 분들에게 꼭 한 컷은 건질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그런 상황이 오면 플랜 B로 콘셉트사진을 찍곤 하죠. 소품이나 라이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해요. 얼마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공모전에서 유행하는 주제가 ‘힐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라이팅 포토그래피가 많아져서 그런 장비들이 유용하게 작용해요.

연 촬영 중 아주 힘들게 찍어서 사진을 얻은 경우나, 아니면 멋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오 촬영을 힘들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운이 좋았어요. 우리 동료들이 전생애 나라를 구했냐고 해요. 사실 일기예보를 보고 가는 것 뿐인데... 예전에 한백산에 은하수를 찍으러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긴 여름에도 파카를 입어야 해요. 엄청 추워요. 근데 저는 여름이라고 안 입고 가서 추워 죽는 줄 알았죠. 별이랑 은하수를 찍을 때는 보통 세팅해놓고 기다리기만 하거든요. 추우니까 저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한 숨 잤어요. 그 뒤에 일어나서 카메라를 보니 엄청난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유성우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성우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는 게 여덟 장 잡혔어요. 유성우가 터진 뒤의 그 잔사까지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것 중 4장을 시리즈로 해서 상을 받았죠. 작년에 천체사진공모전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정말 운이 좋았죠. 또 다른 에피소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뇌우가 온다고 해서 단양으로 달려간 적이 있어요. 그림이 될 것 같았어요. 저한테 사진 배우는 어르신들 태우고 갔죠. 영월에 별마루천문대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영월이 내려다보이죠. 그래서 사진에 영월이 밑으로 쭉 깔려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는 은하수가 있고, 그 위에 번개가 치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도 좋은 사진이었죠.

연 사진을 취미로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오 일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공모전에 내는 이유는 인정을 받는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사진을 찍는 분들은 나이든 분들이 많거든요. 대개 손자나 자식이 있죠. 근데 우리 아빠가 취미로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상을 받아오면 ‘우리 아빠는 사진을 잘 찍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아들은 자기 교수님들보다 아빠가 사진을 더 잘 찍는다고 생각해요. 테크닉 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취미활동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모전을 나가보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연 가족 분들은 직업 외에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괜찮아요. 저희 아이도 사진을 전공하거든요. 그래서 잘 통해요. 고 3때도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도 만나면 사진 얘기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히려 아들이 사진을 하기 전에는 대화가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안양예고 사진과로 진학 하면서 저랑 대화도 많아지고 아들 여자 친구도 사진학과니까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래요.

연 앞으로 좀 더 나아가 프로사진작가로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오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사진은 철저히 취미예요. 제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도 공모전 중에 아랍에미네이트 항공 쪽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상금이 높아요. 거기를 작년에 응모해봤는데 2차까지 갔어요. 3차까지 가면 상을 주더라고요. 그걸 한 이유는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재미 느끼며 할 것 같아요.

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사진철학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 사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늘 제 학생들에게 말해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대화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내 얘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인 비법서

<국선도> 강수혁

<패션모티베이터> 이현주

<육아> 김가화

<사진> 오권열

〈장인 비법서〉에는 〈장인 인터뷰〉 중 네 분께 전수받은
‘소소하지만 알고 보면 사소하지 않은’ 비법들이 담겨있다. 회사 일에 지친 직장인을
위한 국선도 동작, 사진촬영에서 빛을 잘 파악하는 방법, 아이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를 위한 비법 같은, 대상과 상황에 따른 해결법들이 나와 있다.

*본 내용은 장인들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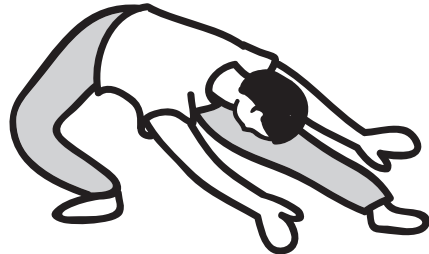


단전호흡

국선도는 단전호흡을 기본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본격적인 비법전달에 앞서 단전호흡에 대해 알아보까요?

단전호흡은 가슴이 아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하단전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자연스럽게 하복부로 안 내려오는 분들은 신체적, 심리적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요, 몸의 긴장된 부위가 어딘 지를 찾아서 천천히 움직여 안정감을 갖고 긴장됨을 풀어준 뒤 배꼽으로 숨을 쉰다 생각하고 2~3일 정도 연습하신다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간에 기혈을 모으는 자세

1. 회식에 지친 직장인을 위한 비법

“어어~ 속 쓰려 회식 하루하면 3일은 고생이리니까! 직장생활을 하는 중간 중간 짬을 내서 간에 기를 보내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건강한 간을 유지해서 주 3일 회식도 이겨 내봅시다~”

- 비법자세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딛고 오른발은 무릎 굽혀 바닥에 대고 왼발 무릎 굽혀 세우고 단전 깊숙이 숨을 마시고 멈추되 양손은 무거운 물체를 드는 듯이 아래에서 부터 팔굽 굽혀 손바닥 하늘을 향하게 하고 양팔 옆구리에 대고 그림과 같이 하여 간장에다 기운을 보낸다 생각하고 하여야 되며 일어서면서 숨을 내쉴다

> 음(陰)의 좌족(左足)과 음(陰)의 간장 유기(流氣)로 간장과 그에 부속된 기관이 튼튼하여지고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회식#술대리#알코올페인#근데출근#멘탈#파괴



두통에 도움이 되는 자세

2. 취업 스트레스에 찌든 취준생을 위한 비법

“아휴 올해에는 취업할 수 있을까? 아으 머리 아파!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여! 국선도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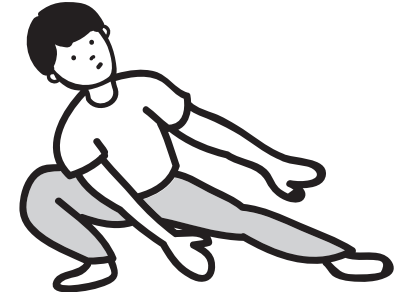
- 비법자세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좌측으로 내딛고 오른발 무릎을 바짝 굽히고 상체를 왼발 방향으로 바짝 숙입니다.

양손도 따라서 그림과 같이 양손바닥 서로 마주보며 단전으로 숨을 쉬고 기운을 폐로 보낸다 는 생각으로 그림과 같은 동작을 취한 다음 일어서며 숨을 내쉽니다.

> 음(陰)의 좌족(左足)과 음의 폐장을 유기로 허파와 그에 부속된 기관이 강화되며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좋은 동작이다.

#이력서#텀딩#명절#ㅎㄷㄷ#통장잔고#는 없어~



심장에 기혈을 보내는 자세

3. 권태기 연인을 위한 비법

“전과는 달라... 마음이 식었는지, 전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설렘도 사라진 것 같아 이제 어 찌지? 권태기가 찾아온 연인들이여~ 함께 배울 수 있는 국선도로 사랑싸움의 종결을 찍는 것은 어떨까요?”

- 비법자세

준비 자세에서 왼발을 좌측으로 멀리 내딛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멀리 젖히되 왼발 배 머리가 일직선이 되게 양손은 그림과 같이 왼발 쪽으로 뻗어 양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숨을 쉬 어 멈추고 심장에 의식을 집중하여 유기시키고 있다가 원위치로 일어서며 숨을 내쉴다.

> 음(陰)의 신부(身部)와 음의 심장에 유기시키므로 심장과 그에 부속된 기관이 강화되며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동작이다.

#오빠#잠깐애기좀해#월#잘못했는데#하루에#톡1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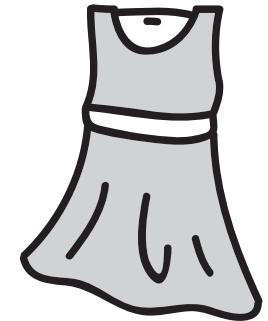
리폼비법



못 신는 양말



늘어난 티셔츠



엄마가 입던 원피스

리폼 비법을 배우기 전 알아 두어야 할 두 가지!

리폼하기 전 서두르는 건 금물!

일단 가위질을 시작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리폼에 앞서 디자인을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리폼하기 좋은 옷 탑3

티셔츠- 자르고 붙이고 꾸미기에 가장 적절한 아이템!

청바지- 오래된 여러 가지의 색이 다른 청바지들을 모아 패치워크하면 멋스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양말- 짝이 없거나 고무줄이 삭아 늘어난 양말들은 예쁜 인형으로 탈바꿈이 가능해요!

1. 못 신는 양말 활용하는 비법

“ 양말은 많은데 짝짝이 양말, 삭아버린 양말들 다 버려야 하나? 잠깐! 꼭 신지 못하더라도 버릴 필요는 없어요~”

- 장인의 비법

알록달록 예쁜 양말이 많지요. 고무줄이 삭거나 짝을 잃었을 때 폭신한 솜을 넣어 인형도 만들고 애완동물의 옷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엄마#양말 없어#양말 한 짝#현상수배#양말구멍#한공포증

2. 늘어난 티셔츠 활용비법

“ 아유 이놈의 티셔츠들은 목이 늘어나서 입지도 못하고 옷장만 차지하네. 늘어난 티셔츠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

- 장인의 비법

티셔츠는 옷을 리폼 하는데 있어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목이 늘어난 티셔츠는 늘어난 부분에 손쉽게 장식을 부착할 수도 있고 늘어난 넥 라인을 잘라내어 U넥이나 V넥 등으로 리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매를 가위로 여러 가닥으로 잘라 수술 장식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어요~

#티셔츠#모세의 기적#노출 항상#엄마가 보고#걸레각

3. 엄마가 입던 원피스 딸이 고쳐 입는 비법

“ 엄마! 이 원피스 버리는 거야? 흠, 뭔가 좀 아까운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리폼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 장인의 비법

본원피스의 디자인이 다양하므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피스는 어깨나 소매 등이 커서 어색한 경우가 많으므로 요즘 유행하는, 어깨가 끈으로 된 뷔스티에 원피스를 만들면 좋아요. 어깨나 소매가 잘 맞는다면 상의가 허리선까지 오는 크롭탑과 길이가 짧은 미니스커트 등 투피스로 응용 가능합니다.

#원피스#고무고무말고#동강동강#투피스#패턴#색감



문화생활 즐기는 비법



품앗이육아



아이의 진로 찾기



육아독립

1. 사교육비 없이 아이와 문화생활 즐기는 비법

“예호……. 이번 주말에는 또 어디를 아이와 가야 하나. 집 앞 놀이터만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호호호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좀만 노력하시면 아이와 즐길 거리가 늘어난답니다~”

- 장인의 비법

먼저 시청, 어린이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위낙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 정보가 알아서 들어오기도 해요!

아이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부모님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마감이 빨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시간에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돌인 분들은 노트북 두 대를 사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동시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문화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사교육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도 첼로, 바이올린을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배웠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엄빠#문화인#갈 곳#없다#마음의#양식#저렴

2. 나만의 시간을 갖고픈 엄마를 위한 비법

“우리 아이는 너무 집에서 혼자 컴퓨터만 하는 것 같아 걱정이네……. 친구들 하고 나가 놀면 좋을 텐데~ 다들 한번쯤은 고민해보는 걱정! 그럴 땐 품앗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장인의 비법

품앗이육아는 말 그대로 다른 엄마들과 협력해서 육아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동네 이웃이나, 어린이집 엄마들의 모임을 통해 인원을 모집하지요. 날짜를 정한 집에 아이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품앗이 육아를 통해 엄마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동료가 생기고 아이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독박육아#나누면#행복2배#품앗이육아#일석이조#아이 좋아

3. 아이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를 위한 비법

“아이가 학교생활이나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부모님들의 시야를 넓혀야 아이의 시야도 넓어질 수 있어요!”

- 비법 멘트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진로는 아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겉에서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어야 하지만, 아이 대신 결정해주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서로가 생각하는 ‘학교’가 무엇인지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해요. 이 후에는 일반적인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또는 학교박청소년 등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진로#대안학교#학교박청소년#의견중

4. 아이에게서부터 독립하고픈 엄마를 위한 비법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 나는 무얼 해야 하나……. 너무 우울한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이의 삶만큼 나 자신의 삶도 중요하니까요!”

- 비법 멘트

엄마는 언젠가는 아이에게서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답니다. 문화재단이나 생활센터 같은 곳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엄마로서가 아닌 한 존재로서 자신의 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간...#독립하라#나를 위한#워크숍#엄마의 추천

- 1)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학교.
- 2) 학교박청소년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의 정의에 따르면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관리비법

1. 사진 공모전 정보를 관리하는 비법

“어느덧 사진이 취미가 된지 1년쯤……. 쌓인 사진도 꽤 많은데 어디 슬쩍 출품 할 공모전 없나? 어서 와요~ 사진공모전은 처음이죠?”

- 장인의 비법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보를 모아보세요! 사 람인, 올콘, 카카오톡, 뉴스검색을 통해서도 공모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차트로 관리를 하 면 좋아요~

#카토프사#로는#불만족#흑시나#하는#마음에#출품#ㄱㄱ



날씨 확인 비법

2. 출사가기 전 날씨를 확인하는 비법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비니까 그때 촬영 나가면 되겠다! 어어, 잠시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 세요!”

- 장인의 비법

사진촬영을 하는데 있어 날씨를 확인하는 것은 정 말 중요합니다. 자칫 날씨를 잘못 파악하면 괜히 헛힘만 쓸 수 있답니다.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어플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상청 앱을 보셔야합니다. 기상청을 통해 풍속과 일교차를 확인하면 물안개나 구름의 움직 임도 알 수 있습니다. 타이데이블이라는 앱을 통 해서는 조수간만의 차를 확인할 수 있고 별지도 앱, 원기날씨 앱, 구글 스카이프 등을 통해 기상환 경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어플을 잘 활용하 시면 출사일정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상청#못 믿는 도끼#믿을 건#내 자신



빛 보는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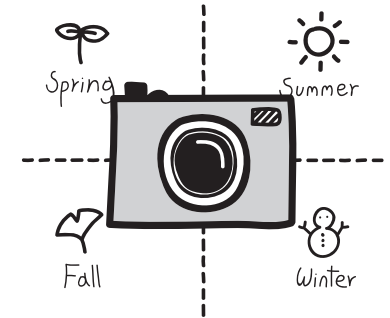
3. 사진촬영 할 때 빛(光)을 보는 비법

“촬영할 땐 역시 빛이 중요하지, 순광, 역광, 반 광……. 아 머리아파! ^.^ 머리아파하지마세요~ 빛은 눈으로 한 번 카메라로 한 번!”

- 장인의 비법

먼저 빛은 카메라로 보기 전에 눈으로 보셔야 해 요. 낮에 보는 단풍하고, 역광에서 빛이 스며드는 단풍하고, 뒤를 돌아서 순광으로 보는 단풍하고 하 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걸 눈으로 익혀야 해요. 카 메라를 먼저 들면 안돼요. 그러면 급해질 수 있답 니다! 눈으로 먼저 보고 느끼고, 내가 어떻게 찍 어야겠다, 구상을 해요. 어느 출사 포인트를 가더 라고 미리 공부를 하지만 그때마다 현장이 다르 거거든요.

#태양권#지구인주제에#제법#초딩#졸업사진각 #자연조명



계절별 출사비법

4. 계절별로 출사장소를 고르는 비법

“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만의 출사 루트를 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릴게 요!”

- 장인의 비법

봄에는 서산 용비지나 저수지 산벚꽃이 많이 핀 곳이 촬영하기 좋습니다. 여름에는 은하수를 찍기 좋아서 가는데, 함백산 같이 잡빛이 없는 쪽이 은 하수 찍기 좋아요! 여름과 가을 중간쯤에 상사화라 고 귀한 야생초가 있는데 그걸 찍으려면 선운사나 불갑사가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찍기 좋은 내장 산이나 백양사가 있고, 겨울에는 설악산을 추천 드 려요~ 설악산에 가면 산고대가 많이 핀답니다.

#봄여름가을겨울#출사장소#나비낙엽단풍벚꽃 #눈누난나

동네 장인

양지이용원

신성자전거

숨틀집

‘경기상상캠퍼스’가 있는 수원 서둔동 지역에는 긴 세월 익혀온 솜씨와 지혜로
자부심을 가지고 가게를 꾸려가는 상인들이 많다. 우리는 그 중 세 곳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선 오래도록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와 그들이 살아온 삶의 깊은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



“머리 자르는 일이 즐거우신가 봐요?
50년을 하셨는데 실증 나진 않으세요?”

“즐겁죠. 실증날게 뭐가 있어요.
밥도 만날 먹는데.”

연구원(이하 연) 이발을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이하 사) 63년도에 이발사 면허를 땀어요.

연 그럼 거의 50년 동안 계속 하신 거네요?

사 그렇죠.

연 처음에 어떻게 이발을 하게 되셨는지 알고 싶어요.

사 어려서 없이 살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했죠. 공부 못하면 옛날 어른들은 기술을 배워야 산다고 그랬어요.

연 서둔동에는 언제 쯤 오셨어요?

사 92년도. 20년쯤 됐지.

연 서둔동에 자리 잡으신 까닭이 있으세요?

사 큰 아들 직장이 여기에 있었어요. 아들을 따라왔지.

연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사 글썄, 크게 어려운건 없었어요. 욕심 없이 일했거든요.

연 가게 안에 시계가 많은데요, 시계를 수집하시는 건가요?

사 아, 시계는……. 어느 날 내가 어딜 지나가다가 시계가 있기에 주워 다가 한번 걸어봤거든. 그때부터 취미가 생겨서 만들어도 보고 하다가 모였어요.

연 그러면 천장에 붙어있는 비누곽이랑 치약 곱은요? 왜 저기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사 아, 그건 천장에 오줌 싼 거 마냥 얼룩이 져있어서 그거 가리려고 박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입자라 건물 보수를 하긴 그렇고 해서.





연 단골손님들은 많으세요?

사 그럼 많지. 진짜 많아.

연 대략 몇 사람 정도예요?

사 세본 적은 없는데 아침에 열시쯤 나오면 두시 반까지는 일한다고 보면 되요.

연 가장 오래된 단골손님은요?

사 있죠. 20년 넘는 손님. 창설자분들이 많지. 여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는 분들.

연 가게 운영하시면서 가장 행복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 손님 받는 게 행복한 거죠 뭐. 그거 밖에 없죠.

연 머리 자르는 일이 즐거우신가 봐요? 50년을 하셨는데 실증 나진 않으세요?

사 즐겁죠. 실증날게 뭐가 있어요. 밥도 만날 먹는데.

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발하시겠네요?

사 몸만 괜찮으면 계속 하죠. 이 일은 손 떨리면 안돼서 손 떨리기 전까지는 할 거예요.

연 이 근처에 미용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가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사 미용실들은 대부분 패션으로 머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머리를 옛날처럼 한 올 한 올 반듯하게 깎아주지. 옛날에는 반듯하게 했거든 머리를.

연 젊은 사람들이 와도 깎아주세요?

사 그럼요 다 깎아주죠. 안와서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안와요. 젊어봐야 35세지. 어쩌다 한 번 할아버지가 손자들 데리고 올 땐 있어요.

연 여기 커트는 얼마예요?

사 5000천원이에요. 노인들은 3000원.

연 다른 곳에 비해 꽤 저렴한 것 같아요. 그동안 금액은 왜 안올리셨어요?

사 올리면 뭐해요. 다 서로 어렵게 사는데…….

연 제가 오다가 쉼터에 계신 할머니께 들었는데, 사장님이 봉사활동을 아주 많이 하신다고요.

사 네 그전엔 많이 했어요.

연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사 내가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해요. 근데 봉사 신청을 해놔더니 다들 운전 되냐고 물어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하는 걸로 합시다, 그랬지. 대신 나 나름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 깎아드리는 걸로 봉사를 했어요. 공짜로. 한 15년 동안 했지. 80명 정도. 지금은 한 세분밖에 안 계셔. 다 돌아가셨거든. 젊은이들은 안하고 노인들만 해드렸어요.

연 와, 정말 오래도록 좋은 봉사 하셨네요! 한 가지 일을 계속 해오셨는데 혹시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사 뭐 이것 때문에 아픈 건 없었고, 대장암 수술한지는 6년 정도 됐어요.

연 지금은 괜찮으세요?

사 늘 조심해야지. 음식만 조심하면 돼요. 지금은 말기만 아니면 다 살아요. 대신 음식을 엄청 조심해야해. 고기는 기름기 때문에 안 먹어. 그래도 오리고기는 많이 먹었어. 오리고기 기름은 뭉치지 않아서 먹어도 되거든.

연 고기 너무 드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이발 하세요.

사 에이,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특별히 바라는 건 없으세요?”

“응 없어. 자식들 잘 살고
나는 죽는 날만 보며 사는 거지 뭐.”

연구원(이하 연) 자전거 수리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장님(이하 사) 이거 한지는 한 40년 정도 됐지.

연 처음부터 이곳에서 가게를 하신 거예요?

사 아니, 처음에는 여기가 개발이 안돼서 저 옆에서 했어. 초등학교 앞에서. 거기서 한 30년 했어. 여기 온지는 10년 정도 되었고.

연 오래되셨네요!

사 그치. 오래되었지.

연 자전거 수리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 뭐 정년퇴직하고 할 것 없으니까 한 거지.

연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 원래는 영등포 문래동 쪽에 있는 공장 생산과에 있었어. 거기에서 반장으로 12년 정도 일했지. 그 회사에 다닌 건 19년 정도고. 그 사이 공장이 이리로 이사를 와서 그때 나도 여기 온 거지.

연 그럼 죄송하지만 연세를 여쭙 봐도 될까요?

사 지금 여든 셋.

연 (놀람).

사 (웃으며) 왜 놀래. 나이를 억지로 먹어?

연 굉장히 건강해 보이셔서 놀랐어요.

사 응 건강해. 눈도 밝어. 다 보여.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렇게 자세도 바르시고 건강하시니.

사 여기서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운동되니까 그렇지 뭐. 만날 움직이니까.

연 자전거 수리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사 응. 많이 와. 여기 다른 수리점도 마땅히 없잖아. 근처에 뭐 하나 있긴 한데 수리도 느릿느릿하고 돈만 많이 받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돈 욕심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점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연 그럼 단골손님들도 좀 있으세요?

사 아이, 많지. 여기 자전거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한테 다 인사해. 안면이 있으니까. 남녀노소 다 있어.

연 가장 오래된 단골손님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사 오래된 분들은 삼십년 된 분들도 있고. 나 면산동에 있을 때부터 오시던 분들은 그렇게 됐지.

연 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사 그럼. 오지.

연 굉장히 수리를 잘하시나 봐요.(웃음)

사 오래됐으니까 눈감고도 하지.

연 가게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어요?

사 어려운거 없었어. 누구한테 탓 하는 거 없고.

연 사실 공간이 좀 좁잖아요. 작업하기엔 협소한 편 아닌가요?

사 작아도 뭐 요 앞에 나와서 수리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 예전엔 뭐 이것저것 허가 받고





더 크게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 해지하고 수리만 해 수리만. 그니까 (좁아도) 상관없어.

연 수리비는 어느 정도 받으세요?

사 다른 곳 보다는 적게 받아.

연 자전거 말고 다른 기계들도 수리하세요?

사 응. 다 하지. 리어카도 하고, 바퀴 달린 건 다 하지.

연 자전거를 만들 수도 있으세요?

사 그럼. 옛날에는 나도 미싱 자전거나 이인 자전거 다 만들었어. 지금은 안하지. 옛날엔 그거 만들어서 대여 많이 해줬어. 사이클 해서 아산도 다녀오고, 인천항구도 다녀오고, 자연농원도 다녀왔어. 지금은 차가 많이 다녀서 힘들지.

연 어르신은 자전거 수리 말고 다른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사 잘하는 거 딱히 없어. 예전에 한문을 배워서 붓글씨는 좀 쓰지. 카드나 상장 같은 거는 내가 다 써. 아들이 회사 다니는데 지가 무슨 팀 회장이래나 뭐래나 나보고 상장 써 달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써주지.

연 가족 분들도 다 근처 사시나 봐요.

사 응. 내 자식들이 오남매인데 아들이 넷에 딸 하나야. 다 가까이 살아서 자주 봐. 내 손녀가 내일 모레 결혼식을 해. 그거 가봐야지. 아들이 나 보고 부주 얼마나 할 거냐고 그러대. 그래서 야 이 노무자식들아! 내 환갑 때 너희 뭐 해준 게 있냐. 내가 한복 다 맞춰줬잖아, 이랬지.

연 그럼 자제분들을 다 자전거 수리로 키우신 거예요?

사 그렇지. 이걸로 다 했지. 결혼도 이걸로 시키고.

연 사모님은 어디계세요?

사 이 건물에 같이 살어. 애들은 내보내고. 와이프는 거의 집에 있어. 여기저기 자주 아파서 어디 돌아 댕기지도 못하고 그렇지 뭐.

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사 나는 괜찮은데 와이프는 심장도 수술했고, 다리도 관절이 아파서 잘 못 걷고. 밥만 하는 거지 뭐.

연 밖에는 잘 안 나오시나 봐요.

사 응 잘 못 나와. 여기(가게)까지는 나오지.

연 여기 계속 앉아계시면 심심하진 않으세요?

사 나는 이 가게 일이 재밌어. 쉬어봤자 노인정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술이나 먹는 건데 뭐. 난 여기 있어도 이웃들이 우리 가게로 놀러 와서 안 심심해.

연 어르신, 지금도 한 잔 하신 거 같은데요? (웃음)

사 응. 한잔 했지. (웃음) 그냥 밥 먹을 때 약주 한 잔 한 거야. 술 냄새 나지?

연 아니요. 전 좋아요. 저희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요(웃음).

사 넌 술 좋아해? 담배는? 나는 담배도 펴. 이틀에 한 갑(웃음).

연 저는 안해요. (웃음) 어르신은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수리하실 생각이세요?

사 응. 그렇지.

연 특별히 바라는 건 없으세요?

사 응 없어. 자식들 잘 살고 나는 죽는 날만 보며 사는 거지 뭐.



기제실

“저만큼이 다 작업 하셔야 하는 양이에요?”

“네.”

“(놀라며) 저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죠.”

어머님과 대화

연구원(이하 연) 이 자리에서 솜틀 일을 하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님(이하 어) 정확히 2000년 5월 20일에 정식 개업을 했고, 개업하기 40일 전에 기계를 들여와서 테스트를 했어요. 횡수로는 18년, 만 17년을 했죠.

연 2000년도에도 서문동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 이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연 처음에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어 애 아빠가 공직생활을 했어요. 30년 정도. 공무원이라기 보단 준공무원.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직 무렵에 매일 예금하시는 손님 한 분이 우연치 않게 이 일에 대해 알려줬대요. 그 얘길 듣고 해볼 마음이 생겼나 봐요. 이게 나의 만년직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남편이 그런 생각을 미리 했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견학을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솜틀방이잖아요. 엄청 충격을 받았죠. 옛날에는 무슨 쟁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이 퇴직하고 이걸 하겠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도 충격이었죠. 고생 않게 대학 마치고 직장 버전한 사위한테 시집을 보낸 건데. 더구나 손주들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이라 한창 학비도 보조받고 해야 하는데. 어른들이 못하게 말리셨어요. 근데 남편이 굳이 이걸 하겠다고 저보고 요만큼만 도와달래요. 나 아니면 지금도 일 못해요! 남자는 기계만 틀지 꺾매는 걸 못하잖아. 손만하고 부드럽게 말도 잘 못하고.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만 설명하다 보니까 여자들하고 상대를 할 때 좀 싫었나 봐요. 영업도 해야 하고 주문도 해야 하고 그렇거든요.

연 일은 아버님이 벌여 놓으시고,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네요? (웃음)

어 어휴... 그러니까.(웃음) 퇴직하고도 직장 동료들이나 동문들이 자기 사업하는 곳에 와서 관리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도 마다하고 이걸 곳곳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써본 사람들이 “장인정신”이라고 말해줘요. 뭐 난 장인정신까진 아닌 것 같고, 고지식하게 사는 거예요. (웃음)

연 그 말이 되게 좋네요.

어 네, 고지식하게..... 사실 요즘 솜 튼다고 하는 곳들은 거의 다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

냥 큰 공장에서 아줌마들이 다 건어간 다음에 주문 받은 사이즈대로만 가져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명을 써서 하나하나 관리해요. 예를 들어 순이네 꺼 이불을 틀었는데 솜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새 솜을 보낼 때 돈이 추가 되는 것도 다 설명 드리고, 솜을 틀었는데 남았으면 잘라서 드려요. 저흰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정확히 알려줘요. 솜 하나 가져와서 두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게 된다면 나일론 솜을 섞는 거예요.

연 그런데 왜 솜을 튼다고 표현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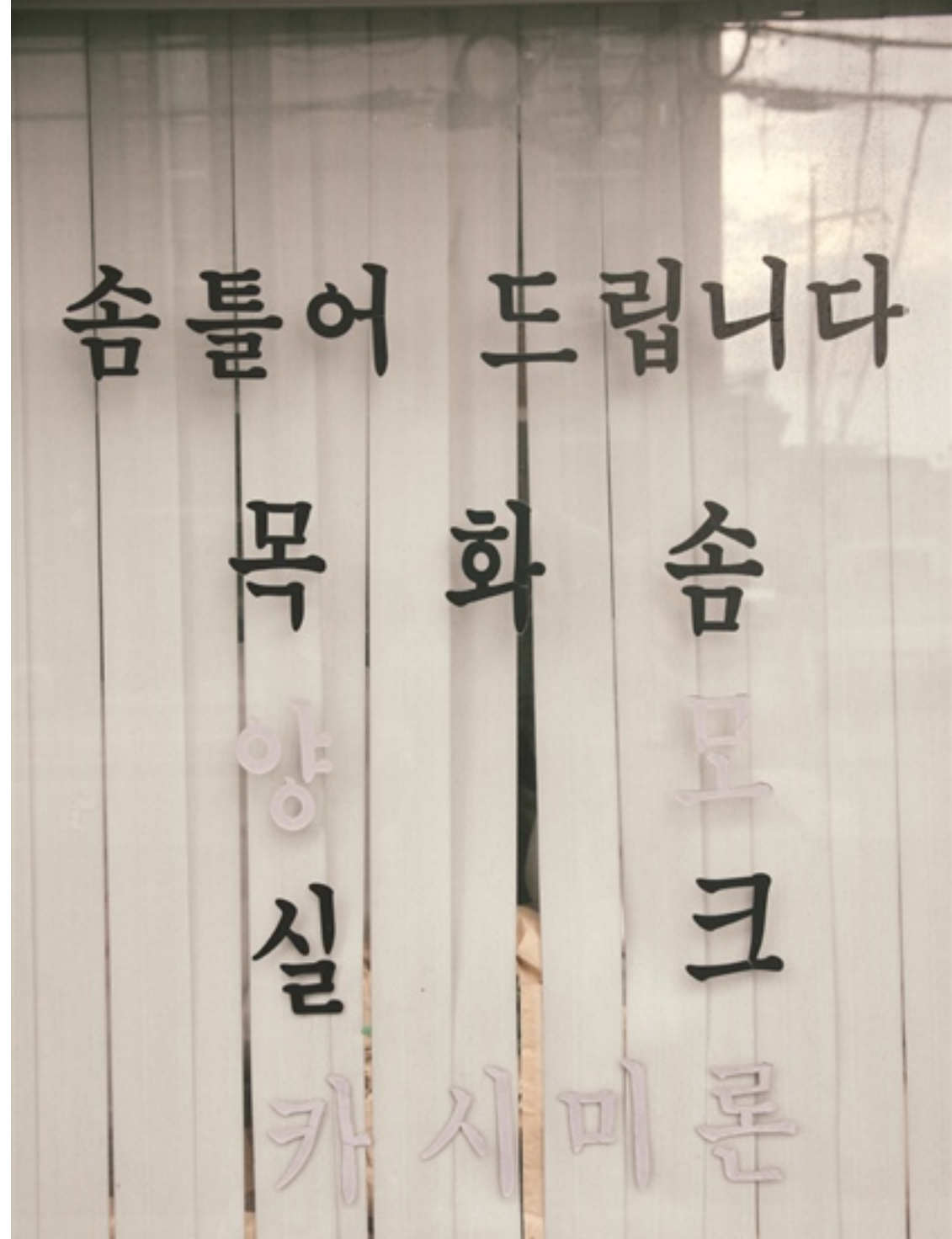
어 다려진 솜에서 섬유질을 골라주는 것을 ‘솜을 튼다’고 표현해요. 우리 집은 우선 원형 복원을 기본으로 생각해요. 그게 솜 튼 것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새 솜을 담을 때는 이전 솜을 따라서 복원해줘요. 그런데 요즘은 ‘솜 튼다’라고 하면 통판선이라고 해서 솜을 분쇄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건 섬유질을 골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분쇄를 해서 하는 거죠. 일단 부숴놔요니까 공기층은 생길지 몰라도 섬유질이 짧고, 섬유질을 끊어놓기 때문에 빨리 주저앉아요. 요즘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솜이 자꾸 도태되고 있어요. 써보면 옛날 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새는 다들 극세사를 쓰는데 극세사는 쓰면 안 좋아요. 본래 침구는 잘 때 흘리는 땀을 흡수해서 발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은 면 밖에 없어요. 옷이 기능성이어도 그걸 입고 자진 않잖아요. 면을 입고 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솜의 중요성을 잊고 극세사로 써요. 아니면 폴리에스테르로 된 걸 쓰죠. 우리가 면 남방 입었을 때랑 혼방 남방 입었을 때, 나일론 추리닝 입었을 때, 느낌이 같던가요?

연 다르죠.

어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극세사는 면이 아니거든요. 싸개 자체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땀을 흡수 못하고, 땀이 차니까 사람들이 이불을 자꾸 차는 거예요. 그래서 침구를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냐가 중요해요. 기능으로 나온 극세사 재질은 외출했을 때 잠깐 입을 순 있어요. 하지만 일고여덟 시간 수면할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오로지 예부터 내려오는 목화 솜 밖에 없어요. 오리털, 양모도 흡수가 안 돼요.

연 보통 목화솜이 무겁다고 하잖아요. 무거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재질을 많이 찾게 되는데, 목화솜을 틀어서 가볍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사실 나일론이나 목화나 들어가는 양은 똑같아요. 삼 길로 정도 되죠. 무게의 개념은 똑같은데 목화는 얇아요. 다른 재질들은 같은 무게여도 봉하니까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목





화는 납작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니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 부피와 질감의 차이로 같은 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어 그렇죠. 풍선도 바람 빠진 풍선이랑 바람 넣은 풍선 중에 바람 넣은 게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원리예요. 어제 어르신 한 분이 이불을 구매하셨거든요? 폴리에스테르라는 것이, 붕~ 뜨는 것도 있지만 몸을 쏘이는 감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걸 덮으면 발끝이 저리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다보니 어르신들은 불편하다 하시죠. 비싸게 주고 이불을 샀는데 별로니까 다시 목화로 바꾸러 오세요. 덮어 본 사람만 목화를 알아요. 그래서 목화솜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집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연 그렇군요. 어디서 그런 걸 다 배우셨어요?

어 저요? 하면서 배웠죠. 십 수 년인데……. 내가 손이 이렇게 기형이 되도록, 하나하나 꿰매가면서. 솜의 성질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솜을 틀어서 하나하나 넣어 이불을 만들었거든요. 넣는 과정도 섬유질의 질에 따라서, 직선으로 넣는 것도 있고, 접어 넣는 것도 있고 교차로 넣는 것도 있어요.

연 좋은 침구를 고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 글썄요. 굉장히 광범위한데……. 제일 좋은 것은 면 그 자체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폴리에스테르 같은걸 고르면 패딩점퍼를 깔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속면은 면에서 오는 거죠. 솜을 얘기해보자면 솜의 품질을 좌우하는 첫 째는 목화솜의 비율이에요. 100%가 가장 좋죠. 두 번째는 섬유질의 길이예요. 길어야 좋죠. 우리는 가능하면 분쇄 안하고 이어줘요. 그게 어려우니까 보통은 커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힘이 약해져요.

연 그럼 목화패드도 따로 있나요?

어 목화패드라고 하지 않고 목화요가 있어요. 바닥에 까는 거라고 해서 크게 더 두껍진 않아요. 왜냐면 솜은 거품을 시켜야 하는데 두꺼우면 통풍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어요. 싱글베드에는 보통 4kg를 써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허리가 아프니까 두껍게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요 안에 솜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누비면 바로 허리 아프고 딱딱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기준점을 지키는 게 가장 좋죠.

연 계속 말씀 들으면서 느꼈지만 목화솜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럼요. 전문가로써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희는 주문해주신 분들 거 하나하나 솜을 직접 구해다가 트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솜을 틀 때 맡은 솜마다 일일이 섬유질을 보고, 주인 이름 다 적어가면서 해요. 손이 많이 가서 이불 당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일이 늘 쌓여 있는 거예요. 다른 곳 같으면 한나절 동안 할 분량을 우리는 열흘에 걸쳐서 해요.

연 아, 그래서 일이 쌓여 있었군요. 보통 이불 하나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어 마무리까지 하려면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걸려요. 애아빠가 들고, 내가 넣어서 꿰매고.

연 그렇게 정성스레하시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 물론 힘이야 들지요. 그래도 우리 솜씨를 믿고 오래도록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 좋아요. 새로운 분들도 소개받아 찾아오시고 그러지요.

아버님과의 대화

연 이 가게를 열기 위해 퇴직을 좀 일찍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하 아) 맞아요. 쉰다섯에 했으니까.

연 아버님 그럼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아 예순여덟.

연 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동안이시네요!

아 속으론 늙었어. 나이 들면 다 아프거든.

연 아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별인 사업인데 정작 일하고 있는 건 본인이라고요.(웃음) 아버님이 이곳 서둔동에 가게를 차리게 된 까닭이 궁금해요.

아 우리 집이 구운동이에요. 내가 퇴직할 당시 앞으로 뭘 할까 하다가 퇴직금 안 까먹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봤지.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니까. 뭘 시작하려면 투자를 일억 정도를 해야지만 시작할 수 있었는데 솜틀방은 퇴직금으로도 괜찮겠더라고. 돈이



안 들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어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이 자리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집 가까운 곳이라고 여길 추천했어요. 그 당시에 이곳은 허허벌판이어서 집값이 싸고 하니까 여기다 했죠. 근데 지금은 집들이 들어차서 나름 변화가가 되었죠.

연 아, 예전엔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 아유, 소나무 밖에 없고 바람 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버스도 없고, 큰길도 없고. 그래서 광고를 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를 안 해도 17년 경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요.

연 침구는 비싸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 그렇지. 요즘엔 또 기능성으로 100만 원짜리 커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드기도 안 살고, 알레르기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진드기가 못 사는 천이 과연 좋

은 걸까요? 우린 원래 진드기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평생 피해 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목화솜 이불을 덮으면서 몸의 저항력을 기르는 게 좋죠.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이런 기능성은 옷에나 쓰면 되는 거예요.

연 정말 공감이 되네요. 진드기도 살 수 없는 재질을 쓰면 사람한테도 좋을 리가 없겠어요. 뭔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에요.(웃음) 좀 전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아버님 말씀들을 들으니 ‘나는 이 장사를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라는 소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첫째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부분을 꼭 알려주죠. 속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둘째는 그대로 틀어주는 것. 이불 가져와서 무겁다고 두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해요. 다른 집이면 큰 솜 몇 백 원하는 것 사다가 섞어서만 들어주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새로 사라고 해요. 우리한테 솜 때다주는 곳도 우릴 속여요. 그래서 이거 감정하는 거 배우는 것만 2년이 걸렸어요. 와이프랑 둘이서. 이젠 안 속죠. 명주, 양모, 목화 등등 좋은 솜 고르는 방법 알려고 배웠어요. 이젠 못 속이지.

연 목화솜은 한번 사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아 대를 물려 쓸 수 있어요. 할머니가 썼던 거 손자가 써도 괜찮아요.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죠. 요즘엔 100년도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엔 샤워도 요즘처럼 자주 안 하고, 세탁기도 없었으니까 관리가 더 힘들었죠. 개천 나가서 빨아야 하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도 하고, 더 깨끗이 관리할 수 있으니 100년도 더 쓰죠.

연 신념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일을 하시니 보람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아 보람 있죠. 목화솜으로 이불을 해 가신 분들이 가끔 다시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아이가 이불 바꾸고 나더니 ‘엄마, 이불이 마술을 부려’라고 했대요. 그만큼 잠자리가 편해졌다는 거죠. 또 어떤 어르신은 등이 시리다고 이불을 해 갔는데, 손자가 이불 속에 같이 누워보더니 ‘할머니 이불은 왜 내거랑 달라!’ 이러면서 뺏어갔대요. 그래서 하나 더 하러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관절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불 바꾸고 나서 아픈 게 다 사라졌다고도 하시고요. 보온이 잘 되니까 냉한 게 없어져서 그런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뿌듯해요. 구매하셨던 분들이 지나가다 말고 ‘아이고, 이불 잘 쓰고 있어요!’라고 반가운 인사도 하고, ‘아직 하시죠?’ 라고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못 그만두고 있어요. 처음엔 10년만 하자고 했는데 벌써 17년 됐잖아요.

장인 발굴 프로젝트

발행정보

총괄 박희주 |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PM 강유리 | 경기청년문화창작소
기획·진행 사소한연구소 | 강우진, 이연우, 하석호, 오린지

편집·디자인 40000km | 오린지
사진 강우진, 이연우, 오린지
일러스트 김진아
교정교열 여귀숙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전 화 031-296-1984
팩 스 031-296-1865
홈페이지 www.ggcf.or.kr

© 2016 경기문화재단

본 책자는 장인 발굴 프로젝트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